

영화 '목화솜 피는 날' 광주 출신 신경수 감독 광주서 기자간담회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6월호

“광주, 5·18 트라우마 있어 세월호 특별히 인식”

세월호 선체 내부 최초 촬영 극영화 ACC 등서 촬영...광주극장 상영중 “관객들에 ‘치유’ 메시지 전해졌으면”

“최초로 세월호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화인 ‘목화솜 피는 날’은 선체의 녹슨 부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작중 ‘병호’가 누워있던 장면은 화물용 차들이 들어오는 D테크(갑판)에서, 에필로그는 단원고 남학생들이 참사 당일 목었던 숙소실에서 촬영했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 ‘목화솜 피는 날’ 신경수 감독의 말이다. 30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카페에는 ‘육룡이 나르샤’, ‘소방서 옆 경찰서’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 온 광주 출신 신 감독을 비롯해 정기성 역을 맡은 조희봉 배우, 영화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연분홍치마가 만든 이번 영화는 유니버스다큐 ‘세 가지 안부’, 장편다큐 ‘바람의 세월’에 이은 트릴로지(Trilogy·삼부작) 마지막 작품이다.

신 감독은 “재작년에 드라마 ‘소방차 옆 경찰서’ 후반 작업 중 연분홍치마 제작사가 ‘세월호 영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다”며 “자기 드라마 작품을 준비하려 했지만 선체 내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 같아 중앙연이 끝나자마자 촬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경연’을 잃어버리고 망각의 늪에 빠진 ‘병호’, 무기력한 아내 ‘수현’ 등 유가족의 모습을 조점화한다.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망자를 ‘기억’하면서 수장됐던 그날의 아픔에 묶여 있다. 로드무비 형식을 차용해 안산부터 진도, 목포 신항 등을 오가며 참사 현장 내·외부 곳곳을 필름에 녹여 냈다.



‘목화솜 피는 날’ 스틸컷



30일 광주에서 열린 영화 ‘목화솜 피는 날’ 기자간담회에 신경수(왼쪽) 감독, 이지운 프로듀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예고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무엇보다 ‘최초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촬영한 극영화’라는 사실은 이목을 끈다. 연출 의도와 맞물린 공간 설정도 치밀하다. 작중 병호의 텅 빈 머릿속을 이미 지화하기 위해 충고가 높은 D테크에서 촬영한 점도 흥미롭다. 세월호 선미, 조타실, 기계실 등도 영화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작중 팽목항에 부착한 타임 그림을 시민들에게 받은 장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료로 촬영했다. ‘거리 선전’ 장면은 광주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촬영하는 등 광주와 연관성도 깊다. 아울러 광주 양동초·병설유치원, 조선대 학생 등이 단원으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신 감독은 “광주는 5·18 등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기

에 유독 ‘세월호 참사’를 더 특별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5월 광주’와 ‘세월호 참사’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TV 밑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라고 적힌 테이프를 발견했는데 5·18을 다룬 다큐 테이프였다”며 “무참하게 훼손된 시신들을 본 뒤 3개월 정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선체 내부 영상에는 4·16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여실히 담겨 있었다. 룡테이로 촬영한 선체는 텅

비어있었으며 세월호 인양 시 전경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곳곳에 붙어 있는 따개비 등 바다생물은 비극성을 더했다. 촬영 당시 선체 내부 가이드는 유가족 ‘동수’ 군 아버지가 맡아 도움을 줬다.

‘목화솜 피는 날’은 세월호 선체 내부를 다룬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선체 내부 촬영을 허가받았지만, 언제 허가가 반복될지 모르는 마음에 ‘조마조마’했다는 후문이다. 에필로그 ‘다크 투어’ 씬을 촬영했던 장소마저 현재는 ‘진입 금지’ 구역이다.

신 감독은 “안전팀을 동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지만 촬영 중 두려움을 호소하는 스태프들도 많았다”며 “야간 촬영시 선내에 조명을 달 수도 없어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작중 진도 어민 정기성 역을 맡은 배우 조희봉도 자리했다. 그는 “어민 정기성 역할 자체는 배우로서는 특별한 것 없는 필모그래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기성’은 어느 때보다 다 사회적·동시대적 의미를 관통한다”고 전했다.

신 감독은 촬영 전 수차례 목포 신항을 찾았다고 한다. 철조망 밖에서 바라보는 선체는 외로움이 가득했지만, 내부에서 본 세월호는 거대한 몸체 탓에 공포감으로 가득했다.

신 감독은 마지막으로 “‘목화솜 피는 날’이 다른 사건 자체는 비극일 수 있지만 관객들에게 ‘치유’ 메시지도 함께 전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예향



참신한 아이디어로 ‘위기 넘자, 전통시장의 변신’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 광주극장 지키는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먹거리가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문화행사를 주도하는 곳, 전통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6월호 특집은 ‘위기 넘자, 전통시장의 변신’이다. 광주 양동시장의 ‘양동 통매 축제’와 강진 병영오일장의 ‘불굴불파’ 등 광주·전남 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동수’ 군 아버지가 맡아 도움을 줬다. ‘목화솜 피는 날’은 세월호 선체 내부를 다룬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선체 내부 촬영을 허가받았지만, 언제 허가가 반복될지 모르는 마음에 ‘조마조마’했다는 후문이다. 에필로그 ‘다크 투어’ 씬을 촬영했던 장소마저 현재는 ‘진입 금지’ 구역이다.

신 감독은 “안전팀을 동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지만 촬영 중 두려움을 호소하는 스태프들도 많았다”며 “야간 촬영시 선내에 조명을 달 수도 없어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작중 진도 어민 정기성 역을 맡은 배우 조희봉도 자리했다. 그는 “어민 정기성 역할 자체는 배우로서는 특별한 것 없는 필모그래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기성’은 어느 때보다 다 사회적·동시대적 의미를 관통한다”고 전했다.

신 감독은 촬영 전 수차례 목포 신항을 찾았다고 한다. 철조망 밖에서 바라보는 선체는 외로움이 가득했지만, 내부에서 본 세월호는 거대한 몸체 탓에 공포감으로 가득했다. 신 감독은 마지막으로 “‘목화솜 피는 날’이 다른 사건 자체는 비극일 수 있지만 관객들에게 ‘치유’ 메시지도 함께 전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선을 빼앗긴다. 광주극장이 80여 년의 세월동안 지금의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간을 아끼고 지켜내려는 ‘서포터즈’들의 열정이다. 나이와 직업은 다르지만 광주극장에 대한 애정은 한결같은 5명의 지킴이들을 만났다.

예향 40주년 기념 남도투어 테마는 ‘남도도 茶 여행’이다. 다성(茶羹)으로 추앙받는 초의선사는 15세에 출가하고 승려가 되면서 산사 주변에 차 나무를 심어 차를 마셨다고 전해온다. 초의선사가 전하는 ‘다도(茶道)’는 참선이었다.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소치 허련 등과 폭넓은 교류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해 나갔다. 한국 차의 성지로 불리는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강진 백련사, 보성의 대한다원 등 차의 고장 남도의 곳곳을 둘러본다.

‘맛과 맛 함께, 남도 유람’은 ‘의향·예향·다향’ 보성으로 떠나본다. 보성은 예로부터 ‘3경(景-산, 호수, 바다)·3보향(寶鄕)’의 고장으로 불렸다. 종의열사를 많이 배출해 의향(義鄕), 서편제 등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예향(藝鄕), 국내 최대의 차 재배지로서 다향(茶鄕)이라 했다. 초여름 초록 용단을 간 듯한 녹차밭을 비롯해 ‘윤제림’ 수국 밭, 울포해수욕장에 여행자의 발길이 몰린다. 벌교 태백산맥 문화거리와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또한 보성만의 역사 문화를 품고 있다. 보성이 자랑하는 녹차와 흑초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아르카시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전문예술단체, 8일 광주예술의전당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며 음악회 티켓을 건네는 고전소설 속 데이트 신청 장면은 현대에 생각해 봐도 낭만적이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쓴 프랑수아 아즈 사강은 이 문장이 ‘물음표 대신 말줄임표로 끝나야 한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아르카시엘(ARC-EN-CIEL)이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펼친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요하네스 브람스,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인생과 사랑을 담은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로베르트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와 ‘현정’, 클라라

슈만 곡 ‘Lieder Op.13’이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의 솔로 연주로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어 감성의 정수 ‘슈만 피아노 4중주 Op.47’ 3악장도 관객들을 만난다. 낭만적이면서 고전적인 감수성이 깃든 브람스 ‘피아노 4중주 1번, 14악장’도 연주한다.

아르카시엘 송도움 피아니스트는 “사랑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여자는 음악회 티켓을 받고 ‘브람스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지만, 남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곳곳이 마음을 전한다”며 “낭만적인 소설 속 전개처럼 이번 음악회에 사랑의 열정, 낭만 등을 담아내고 싶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2016년 창단한 아르카시엘은 제28회 광주음악제, 전남대 피아노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정춘마이크 시너



‘아르카시엘’ 바이올린 김다빈(왼쪽부터), 비올라 서윤아, 피아노 송도움, 첼로 김예은. <아르카시엘 제공>

지 광주전남권 공연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펼쳐 온 광주시 소속 전문예술법인(단체)이다.

전서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보성출신 원로 서양화가 조규일 화백 별세

서양화가 백민(百民) 조규일(사진) 화백이 지난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보성 출신인 고인은 조선대 문리과대학 미술학부에서 수학했다. 진도중을 비롯해 광주동성중, 광주상고에서 미술교사를 역임했다. 생전에 재산과 작품을 보성군에 기증, 국내 최초 군립미술관인 백민미술관 개관에 산파역을 담당했다.

조 화백은 1958년 첫 개인전 이후 LA 모던아트 갤러리 개인전, 서울 롯데미술관 초대전, 프랑스 쇼몽시 초대전, 소련기행스케치전 등 다수의 초대전에 초대됐다. 또한 제26회 국전, 제28회 국전에서 특선, 국전 추천작가 지정을 받았으며 오지호미술상,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고인은 서정적이며 사실주의적인 필법



으로 한국의 자연을 화폭에 담았다. 사실적 재현 너머의 회화적 형상을 추구하는 등 색채의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조선대 미술과 재학 시 오지호화백의 영향을 받아 스승의 예술철학을 견지하려 노력했다. ‘백제의 백성’이라는 뜻을 담은 ‘백민’(百民)이라는 호는 스승 오지호로부터 받았다.

조 화백은 한라산을 비롯해 지리산, 금강산, 제주, 독도 등을 다니며 곳곳의 자연을 접했고 이를 자신만의 색깔로 구현했다. 유족으로 조 현, 조 소, 조미나 등 2남 1녀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